

2021 새해 새 설계

강인규 나주시장

# “민생경제 최우선...나주 미래 100년 기초 세우겠다”



“시민 안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시정의 최우선에 두고 ‘나주 미래 100년’ 시민의 삶을 이끌 기초를 세우는데 전념하겠습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올해 시정운영 방향으로 ▲영산강 생태 복원 ▲금성산 도립공원 승격 및 군부대 이전 ▲광주-나주(목포) 간 광역철도망 구축 ▲LG화학나주공장 지역 내 이전 ▲마한사 복원 등 선도정책과제 발굴 배경 및 실행 등을 제시했다.

나주시는 영산강의 환경과 생태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 대책을 마련하고 호남 8대 명산인 금성산 도립공원 지정을 추진한다.

강 시장은 “자연을 살리는 일은 선택할 일이 아니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그는 “금성산 도립공원 지정을 추진해 온전한 시민의 숲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고 광주 군공항 이전과 연계한 금성산 군부대 이전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광주~나주 광역철도망 구축

### 금성산 도립공원 지정 추진

### 한전공대 내년 개교 행정 지원

강 시장은 광주~나주 광역철도망 구축에 대해 “광주~순천 경전선 전철화 사업과 광주도시철도 2호선을 연계한 순환형 철도망을 구축할 것”이라며 “국토부의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위해 관계기관 간 공동협력 체계를 꾸려 가겠다”고 밝혔다.

LG화학 나주공장의 지역 내 이전도 주요 사업이다.

강 시장은 “LG화학 나주공장은 다른 지역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엄연히 화학공장이고 사고위험이 상존한다”며 “시민 불안감에 따른 공장 이전 의견에 적극 공감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를 구체

## 2021년 주요 사업

- ▲영산강 생태 복원
- ▲금성산 도립공원 승격 및 군부대 이전
- ▲광주~나주(목포) 간 광역철도망 구축
- ▲LG화학 나주공장 지역 내 이전
- ▲마한사 복원
- ▲에너지수도 비전 실현 박차
- ▲SRF 열병합발전소 새 협의체 구성해 해결

화하겠다”는 말했다.

“마한사 복원”과 관련해서는 영산강유역 마한 문화권 11개 지자체, 관련 기관과 연대를 통해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나주시는 에너지산업 4개 단지 지정과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 한전공대 설립 등 에너지분야 국책사업에 기반해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비전을 앞당긴다는 전략이다.

또 각종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추진을 전담하는 빛가람에너지재단을 출범하고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준공을 통한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원스톱 일자리 창출시스템 구축을 도모한다.

특히 2022년 3월 한전공대의 정상 개교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 건축 인·허가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진입도로·가스·통신 등 도시기반시설 공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세계보건기구가 공인하는 국제안전도시와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 노인 일자리·저소득 생계 지원, 중고교 신입생 교육, 대학진학 축하금 지급 등 촘촘한 사회 안전망과 교육 경쟁력을 강화한다.

최대 현안인 SRF(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대안 제시 및 협의 해결해야 한다”고 강 시장은 제시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 장성군, 농촌버스 노선 다음달 ‘전면 개편’

### 신규 아파트·도로 개설 등 변화된 지역 여건 반영

장성지역 주민들의 든든한 발 역할을 하고 있는 농촌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된다.

11일 장성군에 따르면 신규 아파트단지 건설과 도로 개설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버스노선을 전면 개편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버스노선 전면 개편은 지난 2011년 군민운수와 장성교통 합병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다.

장성군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 달린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기존 노선은 최대한 유지했다.

가장 먼저 변화된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 오동촌(구산동)과 황룡행복마을 노선을 신설했다.

주공-대흥엘리젠, 진원 선동, 남면 월정(월산-월계-새터), 삼서 화해, 서삼 태암, 복일 평암, 북이 신평(거마) 구간은 운행 노선에 추가했다.

운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차량을 1대 더 늘려 총 29대의 농촌버스를 운영하고, 이용 빈도가 줄



다음 달부터 장성군의 지역 농촌버스 노선이 새롭게 개편된다.

〈장성군 제공〉

어든 ‘사창-광주 노선’은 ‘상무대-광주 노선’으로 대체했다.

장성-영광, 장성-백양사 노선은 각각 6회에서 4회, 13회에서 9회로 운행 횟수를 줄였다.

장성군은 농촌버스 노선 개편에 앞서 1년 가까이 진행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 노선 개편 용역을 통해 주민 불편 사례와 의견을 면밀히 검토·반영하고 설명회도 열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 장흥군 위원회 비전문가로 구성...거수기 전락

### 대부분 졸속 심의·원안 의결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등 각종 심의위원회가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심사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장흥군에 따르면 각종 사업 심의기구 가운데 상당수가 지자체 관련 인사들로 구성된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다.

장흥군 투자심사위원회는 지난해 총 6건(557억원)의 사업을 심의했지만, 대부분 졸속으로 투자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투자심사위원회(위원장 부군수)는 총 13명의 위원 중 5명이 현직 공무원이고 2명은 전직 공무원으로 절반 이상이 전·현직 공무원이었다. 나머지 위원도 지자체 관련 인사이거나 비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렇다보니 투자 심사가 세밀하게 이뤄지지 못한 채 원안대로 통과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앙부처 심사를 받아야 할 총 263억원이 규모의 ‘노력형 어촌정주어항사업’은 중기지방재

정계획에 반영됐다는 이유로 장흥군 투자심사 대상에 올라 지난해 9월 조건부 심의의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공유재산심의회는 지난해 62건 가운데 3건(보류 2, 부결 1)을 제외하고 59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 위원회도 위원 13명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7명이 공무원(전직 2명 포함)으로 각종 부지매입계획이나 관리계획변경 등의 중요한 논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안대로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실정이다보니 지방재정 투자사업으로 진행한 2017년 탐진강 명소화 사업 중 ‘야외수영장 화장실 설치 사업’은 관련 공무원들이 행사사건에 연루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한편, 장흥군 산하에 각종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무려 100여개에 달해 일각에서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 나주사랑상품권 1000억 규모 발행...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나주시는 올해 지역화폐인 나주사랑상품권을 1000억원(지류 80%, 카드 20%)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지난해 발행된 상품권 836억원 보다 21% 늘어난 규모다.

우선 1분기까지 상품권 구매 금액의 10%를 할인 판매한다. 법인과 단체는 할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역 상품권 발행 규모는 2018년 17억원, 2019년 41억원에서 지난해 10% 할인제 도입, 범시민 상품권 이용 생활화 운동 등에 힘입어 급증했다. 상품권은 개인당 월 70만원까지, 농협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 56곳에서 살 수 있으며 지역 가맹점 3100여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이용 금액의 30%가 소득공제 된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함평군, 귀농·귀촌 세대 건축 설계비 30% 지원

함평군이 민·관 협력을 통해 귀농·귀촌인에게 맞춤형 주택설계를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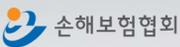
11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함평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으로 귀농·귀촌을 희망

하는 세대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 설계비의 3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함평을 제외한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함평군으로 귀농·귀촌

한 세대다.

함평군은 전입세대 중 주택 신축자를 대상으로 건축설계비 30% 지원, 설계 상담, 건축허가 기간 단축, 현장 기술지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학생·군인 등 일시 이주자와 개발행위·농지전용·산지전용 등의 부대비용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함평=황윤학 기자 hwang@



##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